

# 사회복지 차원의 청소년문제와 사회계층

안 치 민\*

- I. 머리말
- II. 청소년문제와 사회계층
- III. 사회복지와 사회계층
- IV. 맺음말 :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서의 지위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과 완벽한 보호속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간의 중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적인 생산활동 참가자라기 보다는 잠재적인 생산활동자라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인격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내에서의 지위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서 주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욱 그러하다.<sup>2)</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집단 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의 문제로서의 청소년문제는 그 연령의 특수성에 기인하기도 하며, 사회적 맥락에 근거하기도 한다. 예컨대 동일한 행위라 할 지라도 한 사회에서 성인에게는 정상적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일탈로 규정되어 문제시 되기도 하며, 다른 사회에서는

## I. 머리말

청소년은 사회내에서 하나의 연령집단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sup>1)</sup> 생물학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성징(性徵)을 갖고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를 말하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아동의 역할을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까지의 과도적 단계를 말한다. 청소년의 사회내에

- 1) 그 연령의 규정은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으로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개념을 떠올릴 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그러한 연령대의 근로청소년 등을 연상하게 된다.
- 2)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은 오직 미완의 사회적 자원으로서 모든 사회적 생산활동으로부터 유예된 채 오직 가능성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평가받는다(이종원(1993), "청소년연구의 사회구조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2호, p.13).

\* 서울교육대. 청주대 강사

그렇지 않기도 하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인성 등 개인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노력과 사회불평등 등 사회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전자는 청소년문제를 주로 개인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사회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결방식도 전자는 개인적인 결함의 치유 차원에서, 그리고 후자는 사회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전자는 문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상담, 교정 등 사회사업을 통해서, 후자는 조세정책, 재분배 등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두가지 방식이 서로 독립적이며 상호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문제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는 청소년 육구의 기본적 특징 중의 하나는 육구의 사회적 성격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차 사회적 육구의 발생원인이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으며, 육구의 해결방법도 사회적 수단에 주로 의존한다. 우리사회 청소년의 사회적 육구수준 또한 청년이나 성인의 그것에 비해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객관적 요인들과 의미있는 관련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들이 근자에 올수록 점증하고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제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문제로

기 보다는 사회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성이란 특정 문제가 그 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책임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나 구조상의 결함으로 부터 야기되는 경우를 말하며, 보편성이란 그 문제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문제로 문제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도출하는 것이며, 그 공식적인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서의 사회복지인 것이다.<sup>4)</sup>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문제와 그 것의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사회계층 그리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II. 청소년문제와 사회계층

청소년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기라는 기간에 경험하게 되는 일시적인 문제에 해당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하위영역으로서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집단의 문제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비규범적 행동 즉 일탈행동의 문제외에 구조화된 사회불평등 즉 사회계층문제, 사회해체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청소년문제를 생각할 때는 주로 청소년의 비행, 범죄 등 청소년의 일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sup>5)</sup> 그러나 청소년문제를 주로 일탈에 국한시킨다고 해서 여타 사회

3) 김영모 외(1988), "한국 청소년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사회정책연구 제 10집; 김문조 외(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생활세계, 삼성복지재단; 최경규·김선업(1995),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경기 한국사회복지논총 제 1호.

4) 남세진·조홍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p.39.

5)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상 총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표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문제 자체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통계로 추산되지 않는 다양한 청소년일탈도 청소년문제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표 1〉 생활수준별 청소년범죄 구성비 (1975-1990)

단위: %

연도	상류	중류	하류	계
1975	0.4	7.1	92.5	100.0
1980	0.3	9.6	90.1	100.0
1985	0.5	9.9	89.6	100.0
1990	0.6	16.7	82.7	100.0

자료: 법무연수원(1991), 범죄백서.

문제와 괴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 독립된 성인에 이르지 못한 단계로서의 청소년은 가정 등 일반사회의 물리적, 기능적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탈의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갖게 된다.<sup>5)</sup>

청소년일탈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부모 혹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계층이 가장 중시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식범죄통계를 중심으로 볼 때 일탈행위의 상대적 발생은 사회계층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다(〈표 1〉 참조). 그런데 사회계층을 일탈의 사회적 요인으로 중시하는 것은 상이한 계층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의 학습, 자아와 인성의 발달 즉 사회화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문제를 왜곡된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청소년문제를 일탈문제와 사회화문제에 국한하여 일탈과 사회계층 그리고 사회화와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일탈과 사회계층

이론적 관점에 따라 계급과 계층을 엄격히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개념들을 혼재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은 생활기회 *life chance*와 생활양식 *life style*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서로 상이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이한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계층에 따라 일탈행위의 상대적 발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계층간의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위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역기능이며 이것이 사회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인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머튼(R.K. Merton)의 아노미이론 *anomie theory*에서는 일탈이 그 사회에 내재하는 문화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과의 부적응 또는 괴리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도화된 수단에서의 차이를 주로 기회구조의 차이로 개념화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즉 계

〈표〉 총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1986-1992)

단위: 명. ( )는 %

구분/연도	1986	1989	1992
총 범죄	1,041,887	1,337,587	1,542,035
청소년범죄	106,355 (10.2)	108,015 (8.1)	99,301 (6.4)

자료: 1986년은 체육청소년부(1991), 1989, 1992년은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백서.

6) 일탈의 원인으로 개인적 요인을 강조한 것으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이 있고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 것으로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요인(계층 또는 계급), 미시적인 상호작용 요인, 또는 환경 요인 등을 중시하는 이론이 있다.

층적 지위에 따라 제도화된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제도화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차별적인데, 일탈과 계층을 관련시켜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제도화된 수단의 접근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제도화된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sup>7)</sup> 따라서 계층과 일탈은 역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하위문화이론에서는 일탈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 근거한 문화와는 다르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비행하위문화의 규범이나 기대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고,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중간층이나 상류계층의 청소년보다 비행하위문화를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일탈행위를 더 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는 계층과 일탈과의 관계가 필연적이라기 보다는 계층의 문화적·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일탈행위를 야기하는 하위문화적 규범이나 가치는 기본적으로 하위계층 더 많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한편 구조주의 맑시스트 입장의 통합이론에 따르면 어떤 계급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작업장내의 통제구조상의 위치가 다르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가족내의 통제구조상의 차이를 야기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의 초기 결속을 질적으로 차별화 시킨다고 한다.<sup>8)</sup> 이 이론은 부모의 계급적 위

치에 따라 자녀와 부모와의 결속은 질적으로 상이하며, 강제적 통제와 이에 상응한 부정적 결속 즉 통제구조에 대한 가장 약한 결속인 소외된 결속(부모와의)을 갖는 하층계급의 청소년이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함축이 내포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계층은 일탈의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계층과 청소년 일탈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반드시 일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sup>9)</sup> 이에 관한 논거들은 사회계층과 일탈사이의 매개요인으로서의 사회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 사회화와 사회계층

사회계층과 청소년일탈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성을 부정하는 관점들은 학업성취 등 개인의 동기를 중시하고 있다. 로데즈와 라이즈(Rhodes and Reiss, 1969)는 계층을 통제된 후에도 성적은 무단결석이나 비행과 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폴크와 그의 동료들(Polk et al, 1974)은 사회계층을 통제해도 학업성취와 비행의 관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불

7) 계층간 기회구조의 차이는 특히 교육기회에 있어서 명확하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으로는 개인의 노력, 경영능력, 교육수준 등의 통로가 있다. 이중 교육수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측정될 수 있는데, 청소년의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다. 즉 계층배경에 따라 개인의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아지고 있다(안치민(1988), “사회이동과 사회불평등체제의 특성”, 고려대 사회학연구회, 고려사회학논집 제4집; 김영모(1971),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계층적 분석”, 조단학보 제35집 ; 이종재(1982), “사회계층과 교육기회의 배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특히 대학교육의 기회는 중간계층 이상에게 독점되어 있고 하층 또는 노동자 계급에게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8) Colvin, M. and J. Pauly(1984), “A Critique of Criminology : Toward an Integrated Structural-Marxist Theory of Delinquency Production”, A.J.S., Vol.89; 남재봉(1992),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pp.44-45.

9) 예컨대 이장현(1978), Braithwaite(1981) 등은 관계 있음을, 심영희(1981), 남재봉(1992), Tittic et al.(1978) 등은 관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청소년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청소년 자신의 지위특성 중 장래의 사회적 지위획득과 관련한 현재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학업성적이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통제의 선택성의 차원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신의 사회적 지위특성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비행행위의 동기 측면에서는 부모의 지위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지위 특성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 경험적 연구결과<sup>11)</sup>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모든 유형의 비행의 정도가 낮아져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업성취와 일탈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논리의 근거에는 학업성취를 유인하는 것이 개인의 자아정체감, 열망, 동기 등 결국 사회화 과정

의 귀결이라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즉 학업성취로 대표되는 개인의 동기 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화는 부모의 가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으며,<sup>12)</sup> 이들 가치의 차이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삶의 조건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선 계급 또는 계층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강조 정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계급은 중간계급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낮아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덜 한다고 본다. 이는 계급 또는 계층이 교육수준과 강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표 2〉 참조). 또한 중간계급의 부모는 자아통제나 자기감독을 자녀들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주입하지만, 노동계급의 부모는 외부의 규율이나 기준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며 자식들의 감정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

〈표 2〉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자녀 기대교육수준(1993)

단위 : %

가구주	아들				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전 체	1.4	12.1	64.6	21.9	3.0	17.6	64.8	14.6
국졸이하	5.4	35.1	55.0	4.5	11.3	45.0	42.0	1.8
중 졸	0.4	10.6	75.6	13.4	1.0	18.7	72.8	7.5
고 졸	0.1	3.7	71.6	24.7	0.1	7.5	76.1	16.3
대졸이상	0.0	1.0	53.3	45.7	0.2	1.8	64.2	33.8

자료 : 통계청(1993), 한국의 사회지표.

10) 남재봉(1992), 앞글, pp.146-57.

11) 노성호(1992), "청소년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p.73.

12) 최근 한국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은 자신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으로 반수 정도가 부모님을 들고 있으며(50.8%) 그 다음으로 친구(24%), 선생님(8.3%), 형제자매(7.1%), 선배(3.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문조 외 (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세계적 접근-, 삼성복지재단, p.141).

이상과 같이 볼 때 사회계층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탈은 적절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 국민학생 876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계층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결과<sup>13)</sup>를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월소득, 가정의 문화시설, 주택의 크기 등 모든 계층관련 요인 및 종합적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종합적 계층지위의 경우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 83점 수준에서 상층 93점, 중간층 83점, 하층 72점으로 계층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업성취와 일탈의 상관성에 근거한 또다른 논리로는 사회결속이론과 낙인이론을 들 수 있겠다. 사회결속이론에서는 관습적 사회와의 결속이 크면 몰수록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관습적 사회와의 결속으로는 부모 및 학교와의 결속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허쉬(Hirschi)의 경우 학업성적 그 자체가 미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좌절하여 비행으로 나아간다고 보다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선생님에게 호감을 갖는다든지, 좋은 학업성적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일탈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논의한다. 또한 낙인이론의 틀에서 보면, 청소년의 경우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부모나 교사 등 사회일반인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여 주나,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 등 사회일반인이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오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낙

인의 결과로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 Ⅲ. 사회복지와 사회계층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천적 차원으로 바꿔 말하면 사회적으로 인간의 만족상태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구 또는 결핍과 관련된다. 즉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일부 특수집단이나 계층보다는 전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사회사업, 사회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사회사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란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으로는 일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정책과 교정사업, 사회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조세정책, 사회교육정책, 주택정책 등 그리고 사회해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정책, 지역사회복지사업, 재개발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욕구 결핍이나 그것으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일탈, 부적응 등)는 대개 성격상 결함(동기부족, 게으름, 의타심 등)이나 기능상 장애(노령, 불구, 질병 등)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는 자본주의제도의 결함이

13) 김계환(1995), "가정환경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한국교육논총 제7집, pp.161-86.

나 소유관계 및 독점상태(재산, 권력, 자원, 기회 등)에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실현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존 사회구조에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점차 사회적 복지에서 공적 복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사회복지의 책임이 개인, 가족, 부락,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부조와 자조사업을 사회복지의 기본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올수록 시민권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권은 곧 복지권이라는 의식이 발달하게 되어 복지의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사업보다는 사회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란 서구사회에서 특히 2차 대전 이후 실시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탈, 사회화에 국한시켜 본 사회문제로서의 청소년문제는 보다 큰 사회문제로서의 사회계층문제에 대한 해결이 더욱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계층과 사회복지정책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 1. 자유주의 견해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정치경제학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견해에 의하면, 국가가 자유방임정책을 취할 때 시장에 의하여 지배되는 문명의 이점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복지의 개념은 결국 국가

복지와 대비되는 사회복지의 개념으로서 개인들의 복지의 합이 곧 사회복지이며, 국가의 개입없이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사회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현대의 자유주의 견해는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경제논리를 따르는 자유주의의 견해와 이보다는 완화된 정치적 자유주의 견해로 구분될 수 있다.

아담 스미스류의 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 또는 가족의 자유를 사회제도를 판단하는 최종 목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개인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이다. 따라서 이는 물질적인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이라기 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사회정책은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초래하게 하며, 이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뿐만아니라 경제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하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15)</sup>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의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점차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힘있는 이해집단이 그 사회의 성장에 따라 그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몫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주의체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개입주의적인 국가, 즉 복지국가가 오히려 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하고 제한된 정부를 요구한다.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은 이러한 입장을 잘 드러낸다.

복지국가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는 정부나 유권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해진다...

14) 김영모(1993),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p.4-9.

15) Graham, R., 인경석 역(1985), 「복지사회학—사회정책, 계층화 및 정치질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p.53-55.

16) Goldthorpe(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in England 1800-1914", *Transactions of the fifth World Congress of Sociology(1962)*, London,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p.47.

개인적 인 유권자 역시 선거정치에 논리에 따라 자신에게 이로운 정책을 공약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에는 저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는 사회복지가 전체사회 수준에서의 풍요로움에 국한하여 계층간의 불평등분배 등의 문제는 소홀히 하여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사회에서 계층간의 격차심화에 따른 비복지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이러한 극단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자유주의 입장과는 달리 좀더 완화된 형태인 정치적 자유주의 견해는 사회학, 정치학의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실현과 복지국가의 출현을 산업화 논리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산업화 논리에 의해 복지국가의 출현 및 발달을 설명하는 논리는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에 관련된다. 산업재해, 실업, 도시화로 초래되는 여러 문제(범죄, 주택, 보건위생)는 복지국가의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의 성장과 핵가족의 대두로 가족제도가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사회보장의 역할을 더이상 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복지의 대상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즉 산업화 과정은 전통적 지역사회나 확대가족의 붕괴를 촉진하고 기존의 부양기능을 파괴함으로써 체계적인 복지국가의 성립이 요청된다.

산업사회 발전의 최종적인 목표가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면, 전자를 위한 요건은 지속적인 기술적 진보이며, 후자를

위한 요건은 기존 사회제도가 이러한 진보의 고전과 결과로서 그리고 사회적인 불일치와 분쟁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다.<sup>17)</sup> 따라서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회정책은 선진사회의 기능적 필수요건인 기술적으로 능력있는 노동력을 창조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기능주의 사회학자들은 선진산업사회의 '기능적 필수요건' *functional prerequisite*을 도식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는 어떤 객관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가 창조해 낸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요구는 시장에서의 폭력을 무마할 요구,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노동력을 보호해야 하는 요구 그리고 노동계급의 소외를 억제할 요구 등이다.<sup>18)</sup>

이와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사회정책은 모든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도우며 노동계급이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집합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을 하려는 생활계획을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같은 견해는 결국 사회복지를 계층문제 해결의 긍정적 기능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 마르크스주의 견해

마르크스주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특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유방임적인 자본축적은 자유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두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7) Goldthorpe(1971), "Theories of Industrial Society : Reflections on the Recrudescence of Historicism and the Future of Futurology", *E.J.S.*, Vol.12, No.2, p.275.

18) Graham, R., 인경석 역(1985), 앞책, pp.58-59.

고 반박한다.<sup>19)</sup> 첫째로, 자본의 무제한적인 축적은 자유롭게 제한없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갈수록 더욱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되며, 이러한 위기는 자본축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합리성의 주장과 소위 자유경제질서의 고수도 위태롭게 한다. 둘째로, 증가된 생산성의 혜택은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분배되고 무산계급은 상대적인 비참에 시달리게 된다. 마르크스주의 견해에서 복지정책의 주체인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한편 국가의 개입 또는 복지정책에 대해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가계급은 국가가 계급적 인식을 가진 정치적 관리자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즉 정치적 세력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논리하에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은 본래 계급투쟁의 산물이므로 더 이상의 투쟁이 없다면 우세한 계급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로서의 사회정책은 계급간 대립을 승화시키는 새로운 기술의 하나이다. 사회정책에 관한 분쟁은 대체로 더욱 근본적인 형태의 재산소유권과 통제를 무비판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데 기인한다. 파킨(F. Parkin)<sup>20)</sup>은 이러한 견해를 사회복지의 실현은 과격한 혁명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따라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하여 우세한 계급이 부담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재분배를 미리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피력한다. 또한 오코너(O'Connor)는 사회정책의 두가지 역

할 즉, 사유재산의 축적의 촉진과 자본주의 질서의 합법화에 있어서 모순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법화의 기능은 주로 축적의 결과로 초래되는 빈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sup>21)</sup>

이같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통한 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적 통합은 강제와 이념적 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공동의 이익추구라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이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수단들은 자본가 지배계급이 경제적 잉여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등 그들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계층 또는 계급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사회복지의 실현은 계급타협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산 노동자들은 시장 메카니즘 속에 강제적으로 편입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장에서의 교환은 개인복지, 나아가 사회복지의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개입으로 노동계급의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킴으로써만이 노동계급의 복지는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 3. 사회민주주의 견해

마셜은 시민권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시민권을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sup>22)</sup> 시민적, 정치적 요소를 공민권 그리고 사회적 요소를 사회권으로

19) 고영복 편(1994), 앞책, pp.210-11.

20) Parkin(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4th Printing, Praeger Publishers.

21) Bowles, S. and H. Gintis(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231-35; Graham, R., 인경석 역(1985), 앞책, p.52에서 재인용.

22) 이 세 가지 요소의 성취를 역사적으로 누적적인 과정으로, 즉 18세기에는 시민적 권리가, 19세기에는 정치적 권리가 획득되는 역사를 거쳐 20세기의 사회적인 권리가 성립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영복 편(1994), 앞책, pp.215-16).

보고 있다. 여기에서 공민권이 개인이 시장기회를 활용하는 것과 사적인 상속에 의하여 당초에 주어졌던 것을 시장에서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권은 사회정책을 통하여 공동의 재산으로 주어진 것에 개인이 자유로이 접할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권을 곧 복지권으로 보는 것이며, 사회복지를 시민적 권리의 사회적 요소 즉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민주적 접근방식은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을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사회권 또는 복지권을 당연한 권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사회정책에 관한 사회민주적 접근방식의 주된 주제는 사회정책의 형성은 진정한 가치선택의 문제를 포함하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책임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 견해와는 달리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견해와 유사하게, 복지정책 또는 복지국가는 산업화에 따른 체계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도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 특히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공으로 쟁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권의 발달은 더 이상의 혁명적인 요구를 막아내는 즉 계급간의 심각한 갈등을 완화하는 갈등의 제도화 기제이며 산물이라고 본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복지에 대한 관념은 물론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화된 산업사회에서 개인이익의 추구가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조화의 기초로서 충분하도록 조직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견해는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특히 네오-마르크스주의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오늘날 사회에는 서로 다른 계급성원간의 이해관계가 공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또는 복지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수단이 아니라 공동이해의 산물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진정한 통합을 이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견해에서 사회복지의 사회문제로서의 계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국가 또는 복지정책의 목표라 볼 수 있겠다. 베버(Max Weber)는 특히 국가가 생활기회를 분배해주는 자로서,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9세기 후반의 학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은 국민대중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므로 기존 사회질서를 전적으로 붕괴시키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었다. 베버가 비판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그 개인적 입장에서는 비용이 얼마들던지 상관없이, 이러한 복지혜택이 허용하는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23)</sup>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사회보장이나 사회사업과 같은 재분배정책 및 상호부조의 방법이 동원함으로써 불평등구조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3) Graham, R., 인경석 역(1985), 앞책, pp.38-39.

#### IV. 맺음말 :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현재 복지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라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권 또는 복지권은 국가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교육권, 노동 3권, 사회보장권, 환경권, 남녀평등권, 보전권 등이다.

이 중 청소년복지에 대한 조항은 좁은 의미의 복지권으로 헌법 제34조 「사회보장권」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로 노인복지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청소년 자체에 관한 법률 등은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이, 그리고 1990년 「청소년 현장」이 제정되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말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타나 있듯이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복지 부문을 정책대상의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의 독립 영역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sup>24)</sup>

사회복지의 일반적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듯이 청소년복지의 목적은 청소년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양식은 규범적 통합 *normative integration*과 체제적 통합 *systemic integration*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사회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문제의 방지를 꾀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물질적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청소년복지 차원에서의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양식도 이러한 두가지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는 전자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즉 청소년복지정책은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변화시켜주는 사회환경의 개선, 둘째 왜곡된 사회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청소년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교정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데,<sup>25)</sup> 결국 청소년문제를 청소년 자체의 문제로 또는 주변환경 등 문화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문제, 구체적으로 일탈과 사회화에 미치는 계층적 요인의 중요성과 불평등해소 차원에서의 청소년문제 해결방식이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래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sup>26)</sup>는 주목을 요한다. 즉 15세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서 빈곤한 사람이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조사해 본 결과 가능하다(20명)는 응답은 불가능하다(8명)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불평등의 극복가능성에 대한 응답에는 극복 불가능(45명)이 극복 가능(25명)보

24) 최경구·김선업(1995),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경기 한국사회복지논총 제4호, p.5.

25) 최경구·김선업(1995), 앞글, p.6. 이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정책은 교육, 비행, 보호의 필요성에 의한 학생과 요보호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적인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다.

26) 이순형(1991),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2호, p.23.

N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미루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지위의 상승이동을 위한 불평등해소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의 극복을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권으로서의 복지권이 헌법과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실

천적인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있으며, 또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청소년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도 계층간의 격차 및 갈등해소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다.<sup>27)</sup>

## 참 고 문 헌

- 고영복 편. 1994.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 김문준 외. 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 생활세계적 접근 -」, 삼성복지재단.
- 김성이. 1990. 「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2호.
- 김영모. 1971.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계층적 분석」, 진단학보 제35집.
- 김영모. 1993.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제한. 1995. 「가정환경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한국교육논총 제7집.
- 남세진·조홍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 남재봉. 1992. 「청소년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성호. 1992. 「청소년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백서」.
- 심영희. 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15집.
- 안치민. 1988. 「사회이동과 사회불평등체계의 특성」, 고려대 사회학연구회, 고려사회학논집 제4집.
- 이순형. 1991.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2호.
- 이장현. 1978.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1집.
- 이종원. 1993. 「청소년연구의 사회구조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2호.
- 이종재. 1982. 「사회계층과 교육기회의 배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 장일순. 1991. 「독일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2호.
- 체육청소년부. 1991. 「청소년백서」.

27) 예컨대 독일의 청소년 지원정책 배경은 본래 19세기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문제 그 중 특히 극빈자들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 해결의 일환이었으며, 오늘날도 역시 가정형편이나 환경이 좋지 못한 하류 및 빈민계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장일순(1991), “독일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2호, p.123).

- 최경구·김선엽. 1995.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경기 한국사회복지논총 제4호.
- 한국청소년학회. 199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 황청일. 1995. 「사회복지행정론」, 청주대학교출판부.
- Braithwaite, J. 1981. "The Myth of Social Class & Criminality Recondred", *A.S.R.*, Vol.46.
- Colvin, M. and J. Pauly. 1984. 'A Critique of Criminology : Toward an Integrated Structural-Marxist Theory of Delinquency Production', *A.J.S.*, Vol.89.
- Goldthorp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in England 1800-1914", *Transactions of the fifth World Congress of Sociology. 1962.* London,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 Goldthorpe. 1971. "Theories of Industrial Society : Reflections on the Recrudescence of Historicism and the Future of Futurology", *E.J.S.*, Vol.12, No.2.
- Graham, R., 인경석 역. 1985. 「복지사회학—사회정책, 계층화 및 정치질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Parkin.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4th Printing, Praeger Publishers.
- Tittie, C.R. et al., "The Myth of Social Class & Criminality: A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A.S.R.*, Vol.43.